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 및 오찬

- 기술, 기능의 미래 -

“기술 경쟁력이 가장 성적이 좋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가적으로 매우 뜻있는 행사를 계기로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훌륭하신 명장님들과 함께 해서 매우 기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렸을 적에 소풍갈 때처럼 마음이 설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한국 미래와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저는 우리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낙관의 근거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입니다. 분석해서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역량 중에서도 과학적, 기술적 역량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 자질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망을 밝게 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나머지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될 것입니다. 경제와 민주주의도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고, 후세에는 나머지 부분도 해결될 것입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에서도 한국 경쟁력이 과학이 세계 6위, 기술이 세계 2위라는 조사가 나왔고, 결국

기술 경쟁력이 한국의 제일 좋은 성적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노사와 교육 분야인데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를 분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과 기술은 밀접합니다.

기술도 기술과 기능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통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 기능은 사촌뻘 되는 영역입니다. 과학기술하면 R&D 연구개발을 얘기하는데, 연구실에서 연구개발만 떠올리는 연상 작용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성장 경제발전에서 보면 연구 성과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 하지만 현장에서 일귀내는 기술혁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R&D 국가과학기술 체계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데 연구실 연구인 R&D로 자원을 그쪽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 기술도 빠뜨리지 않고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과학기술 혁신 체제에는 현장 기술 인력의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뒷받침 하는 계획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성공 모델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미래지식기반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분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의 기능과 기술을 지식 기반화 한다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단순기술이고, 어떤 부분은 지식기반으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결합되어야 만이 지속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듬어 나가고, 여러분을 뵈고, 서두를 연다는 뜻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의 일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중요하고, 선배들이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여담으

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인지 통계를 잘 내지 않고, 느낌과 감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한 것인지 감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이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대기업 임원 등이 모델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에서 오늘과 미래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느끼지만 삶의 질과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국가정책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과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공모델의 통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은 언론들이 간추려냈는데, 그 안의 모델이 불공평하고 미래지향적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모델은 창의적인 중소기업을 통해 기술로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가한 사람 중 가끔, 특별히 끼일(성공한 모델에) 뿐이지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으로써 따로 성공한 모델로 평가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새롭게 평가한다면 기술, 기능의 영역이 갖는 사회적 기회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 노동부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새로운 통계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있어서의 행복지수, 보람과 가치의 지수를 다시 한 번 평가해 그것을 통해 기능과 기술의 방향으로 자기진로를 향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